

1. 중심인물이란?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섭리해 오셨는데, 섭리를 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중심인물을 세워서 섭리를 폈다는 거예요.
	① 온 지구촌 가운데 가장 중심인물이 될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삼는 사람. 그러니까 온 인류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 아담 때는 아담 ㉡ 노아 때는 노아 ㉢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 이삭 때는 이삭 ㉤ 야곱 때는 야곱 ㉥ 요셉 때는 요셉 ㉦ 모세 때는 모세 을 중심인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② 성경을 보면 ;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이 중심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③ 攝理史(섭리사)는 中心人物을 中心한 歷史이다. : 섭리사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성경상의 주요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이며, 이들 중심인물을 통해 그 시대에 맞는 역사를 펴셨다. 따라서 섭리사는 중심인물을 통한 역사이다.

1. 중심인물의 필요성	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 시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 구원섭리를 펴는데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하는 섭리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②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 것이다.’하는 역사의 비밀들, 역사의 프로그램들을 가장 먼저 그 시대의 중심인물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 오늘날 이 시대 <u>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깨닫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u> <u>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중심인물을 만나야 된다는 애깁니다.</u> ㉣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목적. 시대를 향한 시대의 창조목적, 역사적인 목적, 뜻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보낸자를 만나는 것’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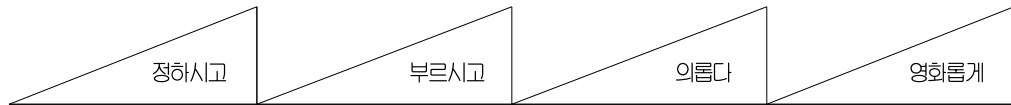
I 서 론	1. 중심인물의 뜻 (1) 정의 ① <u>중심인물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사람입니다.</u> 즉, 그 시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 쓰는 사람, ② <u>중심인물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u> 중심인물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왜냐하면, ‘<u>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어떤 역사를 펴겠다.</u>’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중심인물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예요. ③ <u>중심인물은 시대의 하늘 입장을 땅에서 이끌어 가는 자를 얘기합니다.</u> ; 중심인물에 대한 이해는 하늘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서 중심인물을 통해서 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하늘 길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2) 중심인물은 하나님 구원 섭리의 시발점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자이다.
--	---

II. 본 론

(1) 성경에 나와 있는 데로 뽑아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롬8/29~30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하나님이 중심인물을 뽑을 때는 아주 일찍부터 미리 정하세요.

아무 곳에서 뽑아놓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종자,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아오는거예요.

엡1/4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인물을 미리 뽑아요.

㉠ 일국의 왕비를 간택하는 것과 같아요.

택하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 뽑는데, 택하고, 찍고, 꼬시고, 사권 뒤 결혼.

예화) 옛날에 임금이 왕비를 뽑을 때는 가문이 좋고, 심성이 좋고, 여러 가지 배경이 좋고 이런 중에서 기가막힌 부모들 밑에서 양육된 여자애 하나를 미리부터 뽑아가지고, 개를 특수교육을 시키면서 왕하고 같이 키워요. 그러면서 왕의 부인으로 간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메시아도 심령의 발판이 되어 있는 가장 좋은 가문에서 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하는 것은 일국의 왕비 간택과 같다.

㉡ 이처럼 중심인물 뽑을 때도 “니가 이중에서 제일 나으니까 네가 한 번 해봐”

이런 식으로 뽑지않는 다는거야.

이미 옛날 옛적부터 준비하고, 그 사람 한 사람 뽑아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뽑아서 부르는 거예요.

II. 본 론

② 왜 미리 뽑느냐 하면,

㉠ 아들에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표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뽑는 거야.
가르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화)

국화꽃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국화꽃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종자를 가지고 심은 묘목을 가지고 미리 뽑아서 그것으로 특수하게 거름을 주면서 틀을 잡아서 아주 조화롭고 맛있는 국화라는 작품을 뜨거든요. 그죠.

; 이것처럼 ‘**작품이 딱 떠진 것**’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을 내기 위해서 종자에서부터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 이런 것처럼 메시아를 뽑을 때도

일찍부터 가문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고,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는 노정을 겪게 하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③ [참 조]

사 울 의 선 택 방 법 과 같 다	삼상 10/17~24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	---

: 세계 -> 민족 -> 가문 -> 가정 -> 한사람

먼저는 지구덩어리의 모든 사람을 정하시고 전체에서 하나를 뽑으신다.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1)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V ㉠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2) 부르시고 8사생애 V a)	데후2/14 :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부를 때도 복음으로 불러요. 예화) 여러분도 부를 때 월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보면 여러분 주관권에서 보면 중심인물이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뽑혔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중심인물 들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직장에서 중심인물들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기 전까지는 가장 인생을 곤고하게 살면서, 인생에 번뇌와 갈등과 몸부림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양육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갈급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므로 <u>인생문제를 치유시킵니다.</u> ㉢ <u>자기 인생에 구원을 이루게 한 다음에</u>, 그가 시대를 바라보니까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이생과 같은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화) ‘야!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누구나 막론하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얼굴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인생문제를 가지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살해 죽기까지 하는구나.’ ; 이런 것을 뼈절히 느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메시아 한 사람을 뽑아놓고 불러서 키운다는 거여.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② 교훈 W ㉠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되요. 아시겠어요?! ㉡ 누가 여러분을 불렀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불렀는지, 동생이 날 불렀는지, 도지사가 불렀는지, 대통령이 날 불렀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예화) 대통령이 날 불렀는데, 비서로 쓰고 싶어 불렀는데 그냥 청바지 입고 날라 가요. 그럴 수 없잖아. 어디에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행실이 달라지는거 아니겠어요. ㉢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를 때도 어느 복음의 사역지에서 불렀는지 봐야 됩니다. 예화) ㉠ 선지자 말씀에 복음으로 불렀는가 ㉡ 제사장급으로 목사들의 이름으로 불렀는가 ㉢ 그리스도가 되는 시대의 주인의 복음으로 불렀는가 ; 도대체 나를 어떤 복음으로 불렀는가?! 도대체 나를 어떤 세계로 불렀는가를 깨달으려면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③ 복음으로 부를 때는 보다 더 <u>사생애</u>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요. ㉠ <u>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았다가</u> <u>성장기간에 복음으로 불러서 완전히 말씀에 깊은 도를 터득하게 만들어요.</u> <u>이 때는 그야말로 연단기간이며, 말씀을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u> ㉡ 그런 다음에 복음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삶에 변화가 생겨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의 실천가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삶을 갖춘 거죠. 이런 존재자 일진데는 영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완성되면 영화가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2) 부르시고 사생애 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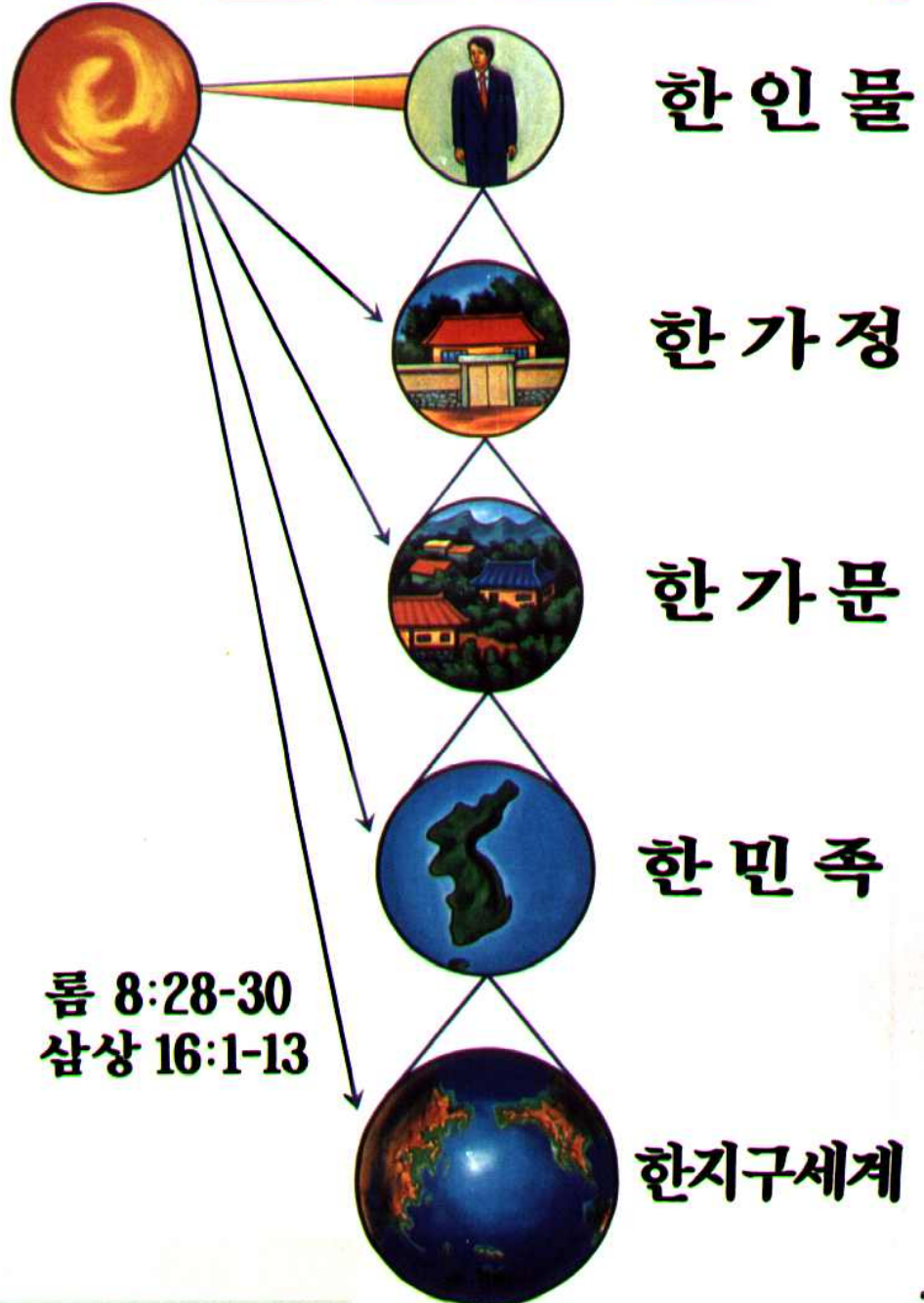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④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인격체가 되고 인생에 표상이 되고 삶에 본이 될만한 사람이 있다.’ 면 왠지 그 사람을 본 받고 싶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예화) 내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소망도 희망도 사랑도 없었던 메말랐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 삶의 가치를 깨우쳐줬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관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민족까지도 구해낼 수 있는 진리의 세계로 나를 양육시켰다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낸자는 <u>먼저는 사생애 기간동안에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요.</u> <u>또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져요.</u> <u>그런 후에 하늘로부터 받은 복음을 갖고 나타나서 역사를 펴면서 영화를 받아요.</u> 예화) 뭔가 얼굴만 잘생겨도 영화가 따르는데 연애인만 되어도 영화와 영광이 따르는데, ; 하물며 메시야가 되는데 영화가 안 따르겠어요.
	③)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하여진 다음에 영화가 따르는 거예요. [공생애]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기 때문에 “의롭다”할 수있어요. 이것이 공생애. 정말 정금과 같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 완성에 존재자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죠. 아시겠어요. ; 그래서, 공생애로써 의롭게 하신다는 거야.
	④)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사신다는 거야. 이 사람은 역시 부활 생애의 노정을 걷는다는 겁니다. 榮華가 따를 때는요, 이미 공생애로써 역사를 많이 펴니까 따르는 우리들이 영화를 주는 거야. 부활생애 때. 그래서 중심인물을 뽑는 방법은 4단계를 통해서 중심인물을 뽑아나갑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정한다는 거야. 그리고서 불러가지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2) 도표설명

중심인물선택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① 우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곳이 지구잖아. 온 우주 가운데 지구를 뽑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② 지구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섭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한 민족을 뽑아요. 종교의 핵심국가이면서 가장 희망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민족을 뽑아나가거든요 ☆ <u>그런데, 여기서 왜 대한민국이 그려있나?</u>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뽑은 나라예요. ㉠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퍼센트로 볼 때는 월등하게 많잖아요. ㉡ 서양 같은 경우는 다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안그렇잖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서양이나 일반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에 관례적,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인생의 근본을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예화)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미국에 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네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미국 땅만 가면 완전 유명한 목사로 뜬데요. 신령한 민족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 이럴 정도로 우리민족은 기독교에 핵심국가면서 신령한 민족이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세계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는 민족이다.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면서 광신에 가깝게 믿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 우리나라는 어떠한 종교를 갖다 놔도 성공하는 나라예요. 뭐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유교, 여화와증인, 별의 별 종교를 갖다 놔도 다 성공하는 곳이에요. ; 그래서 종교의 최고 옥토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좋은 것을 심어야 되잖아요. <u>제일 좋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게 마땅한 일</u>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2) 도 표 설명 ㉦

10~11 페이지의 ☆표는 상황에 따라 강의에서 빼도 됩니다.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II. 본 론	
	(2) 도 표 설명	☆“<u>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리니</u>” 이 동방이 과연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는 서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에서 번쩍 한 것 같이 동에서 번쩍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전반기는 서에서, 후반기는 동에서. ;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것은 재림을 예언한 것 입니다. ㉠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분명히 동방에서 일어나는데 동방이란 나라로 친다면, 예화) 대한민국이 있죠. 일본있죠. 대만있죠. 중국있죠. 필리핀있죠. 싱가포르있죠. 이러한 기타 등등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방콕 - 완전히 미신숭배 일본 - 私神, 동남아 전체가 대한민국을 빼고는 기독교가 승화된 데가 없어요. ㉡ 우리는 동남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에 신앙에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고 이러한 진리도 그래서 우리민족에게 주신 것 같애요. ㉢ <u>한 민족 가운데서 또 가장 이상적인 가문을 뽑아요.</u> 보면 가장 좋은 가문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가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가문의 신앙적인 면, 인격적인 면,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인간에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되어서 뽑는 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한 가문이 뽑힙니다. ㉣ <u>한 가문 중에서 한 가정을 뽑아나가요.</u> 이 가문에서 최고에 이상적인 표상이 될만한 가정을 뽑고 ㉤ <u>이 가정 가운데 또한 가장 표상적인 한 인물을 뽑습니다.</u> ; 이 사람이야 말로 세계 인류 가운데 뽑힌 사람이고 민족 가운데 뽑힌 사람이고, 가정과 가문 가운데 뽑힌 절대적인 그 한 사람을 뽑아요

II. 본 론	
1. 중심인물인 메시야는 하나님의 절대예정 가운데 뽑히나 가운데 뽑히는 것이다. ㉓	이렇게 뽑는 것은? 메시야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뽑히는 거예요. 인간이 뽑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뽑히는 거예요. ① 이런 사람을 뽑아갖고 어린 시절부터 키우는 거야. 예화) ㉑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봐요.(수영종목) 외국은 2~3살부터 배워요. 조기 교육을 해요. ㉒ 피아노도 2~3살부터 배우거든요. 애들이 피아노 건반 만질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쳐요. ;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②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태속부터 가르치는 것은 아니예요. 思考가 있을 때부터 ㉑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넣고, ㉒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㉓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동고동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삶에 연단들을 겪게 만들어요 고통, 아픔 슬픔, 번뇌 인간의 삶에 한계 등을 ③ 지구촌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날 때부터 대통령이었고, 날 때부터 왕족으로 나고 날 때부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㉑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게을러서 못살어” “의욕심이 없으니 못살지.” “그래 머리 나쁘니 성공 못 하겠어.” 이렇게만 본다 이거죠. ‘제일 못 살고, 제일 험벗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겠구나’. ㉒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각할 만큼 가장 밑바닥의 생활부터 하면서 기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양육시켜서 온 인류에 표상적인 인물로 키운다는 거예요.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3) 메시야는 하나님의 절대예정 가운데 뽑히는 것이다. ⑥	④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명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다룰 수 있어요. 예화) 저도 교직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다뤄보지만 상대방을 이해해야지만 다룰 수 있지,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면서는 안 다뤄지더라고. “어! 너 상격이 왜 그러니. 너는 사고방식이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가더라고. ⑦ (R 증거)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조금 달라요. 예화) 우릴 지도하시는 총제님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늘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재가 알미워 죽겠는데, “선생님은 왜 <u>젤 잘 대해주실까? 정말 선생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신 분이야</u>”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투덜투덜 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애를 이해하는 거야. 목사님을 비롯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만은 잘 듣는 거야. “저건 선생님 말만 듣고, 우리말을 안 듣고 알미워 죽겠다”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u>선생님은 자기를 정말 이해한데. 자기는 인생 살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 밖에 못 만났데. 선생님 밖에.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많은 종교생활을 해 봤지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데요.</u>” 그런데 개는 광장이 툭툭 튀는 애였어. 그런데 선생님만 만나면 순한 양이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u>선생님이 정말 자기의 본질을 이해해 준다.</u>”는 거여. “<u>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면 아무런 말이나 듣고 싶데요. 듣지 말라해도 듣고 싶데.</u>”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⑧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애를 이해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막연한 성자의 삶을 사신 게 아니라 가장 인간에 疾苦(질고)와 고통과 무시와 인간으로써 당하는 수모의 세계를 다 겪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깊고도 넓은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다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맺히고 서러움에 복받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나 울면서, 자기의 감정이 풀리면서 원한이 풀리면서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하고 깨닫게 되요. ⑨ 늘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사람 뽑을 때는 그런 세계를 다 겪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어떻게 뽑느냐?	(3) 메시야는 하나님의 절대예정 가운데 뽑히는 것이다. ©
	㉞ (R 증거) 우리 선생님은, 사람을 만나면 거의 다 뒤집어 놔요.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인의 능력, 신의 능력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탁하고 받아 오신 게 아니더라구요. 자신의 삶의 연단 속에 터득한 도를 통해서 사람을 다루어 나가더라란 거죠.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초인의 능력을 갖고 신의 권능을 갖고 나타난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예요. 뭔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무조건 다 이해한다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굶주려본 사람만이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 돌아가신 사람만이 부모 없는 자의 외로움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 이런 것처럼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듯이 사람은 경험해봐야 알거든. 경험해봐야. ; 이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경험을 시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보낸다.
	㉟ (R 증거) 선생님만 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어서 말씀도 주시고, 역사도 펴는데, 보면 뭐가 다르냐 하면 <u>“나도 다 알어”</u>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u>“나도 다 알어.”</u>하는 표현이 아니라 <u>‘정말 나도 너와 같은 삶을 걸어왔다.’</u> 이런 것이 마음에 스며들게 느끼게 해 주는 그러한 삶에 표상을 보여주시더라란 거죠. 그게 달라요. 이시겠죠.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겪어서 사람되게 하는 겁니다.

II. 본 론	
1. 중심인물은 (3) 메시야는 하나님의 절대예정 가운데 뿔히는 것이다. ㉔ 어떻게 뿔느냐?	⑤ 중심인물(=메시야)이나, 하나님 사람처럼 주권이 큰 사람이 없어요. 예화) 왜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임기기간이 기껏해야 5년밖에 더 되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만 힘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힘쓰는 줄 알아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파워가 세다고 한국까지 와서 힘쓰는 게 아니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 안 듣거든요. 이런 것만 볼지라도 한 나라에 국한된 왕일 뿐이에요. 또 임기적인 대통령일 뿐이야. ㉓ ;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메시야는 한 번 나타나면 천년 동안 메시야 노릇 합니다. 또한 역사에 영원토록 기준자가 되요. ㉔ 이렇기 때문에 ㉔ a 주권과 권력으로 말하면, 이를 따라갈 사람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최고의 권력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권력자의 심정도 알아요. b 있다 하는 자의 심정도 알아요. c 도를 터득 했다 하는 자의 심정도 알아요. 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세계까지 기어 올라와서 이루어 놓고 간 사람이야. <u>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나타난다는 얘기에요.</u> 그런 사역자가 아니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뿔어나가더라 이겁니다.

II. 본 론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시대성을 보고, 시대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 중심인물의 자격 ?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얼굴이 이뻐야 되나? 키가 커야 되나? 돈이 많아야 되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쪽 가문이 종교 가문이어야 하나? 어떤 조건이 가장 먼저되는 조건이 될까? 궁금하죠.
	天 : 하늘천. 品 : 성품을 말하는 성품성. (1)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나?”를 보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뽑는 첫 번째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 됴됨이가 가장 근본이야. 온 인류 가운데 마음 됴됨이가 최고인 사람. 하나님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거예요. R 증거) 우리 총제님도 보면, 사람 뽑을 때, 키 크고 인물 좋은 사람만 뽑 나 했더니, 절대 그게 아니야. 가장 먼저 뽑는 것은 천품을 보고 뽑더라고. 인격의 됴됨이. 마음 씀씀이. 이것이 가장 먼저다. 그랬어요. 천품은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타고 난 하늘의 사상, 정신, 인격 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걸 보고 뽑아요.

II. 본 론

1) 삼상16/1~13

※ 참고 : 이 부분은 숙지해서 이야기 식으로 자연스러이 하길 바랍니다.

삼상16/1 :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언하였음이니라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길“ 다른 왕을 뽑아라. 나는 이에게서 떠났다. ”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안으로 가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왕을 뽑았어요.)
삼상16/2 :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 :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냥 왕을 뽑는다고 하고 가면 사울 왕이 죽이잖겠어요. 그래서 모사를 쓰기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면서 “ 이새라는 제사장 집에 가서 제사 드린다. ”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 자리에 제사장 이새를 청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이 딱 지목하는 그 사람한테 네가 기름을 부으래요.
삼상16/ 4 : 사무엘이 여화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이까. 5 :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이나 유지들이 나타나서 “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고 하니깐“ 평강을 위해서 제사드리러 왔다. ”고 하면서 그 제사에 이새하고 그 아들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6 :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화와의 기를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이새의 큰 아들이예요. 엘리압이 얼굴이 흰하고, 키가 후리후리 하고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막 감동이 오면서“ 과연 여화와의 기를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도다. ”이랬어요.
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 여호아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u>생김새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야.</u> ㉡“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 ; 이것은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 <u>용모와 신장을 보고 뽑은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u> ”는 얘기가. 아시겠어요. ㉢ 그래서 “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 ;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고, 이 섭리사로 부르셨습니다. 역시 메시아를 뽑을 때는 중심을 봐요. 천품, 마음, 사상을 가장 크게 본다.

※ 옛날에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징표로 사명을 주는 애기거든요. 그래서 탕으로 기름을 부으라. 이런 얘기예요.

2. 중심인물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1) 가장 먼저는 **전통을 본다.** ㉠

II. 본 론

1) 삼상16/1~13

※ 참고 : 이 부분은 숙지해서 이야기 식으로 자연스러이 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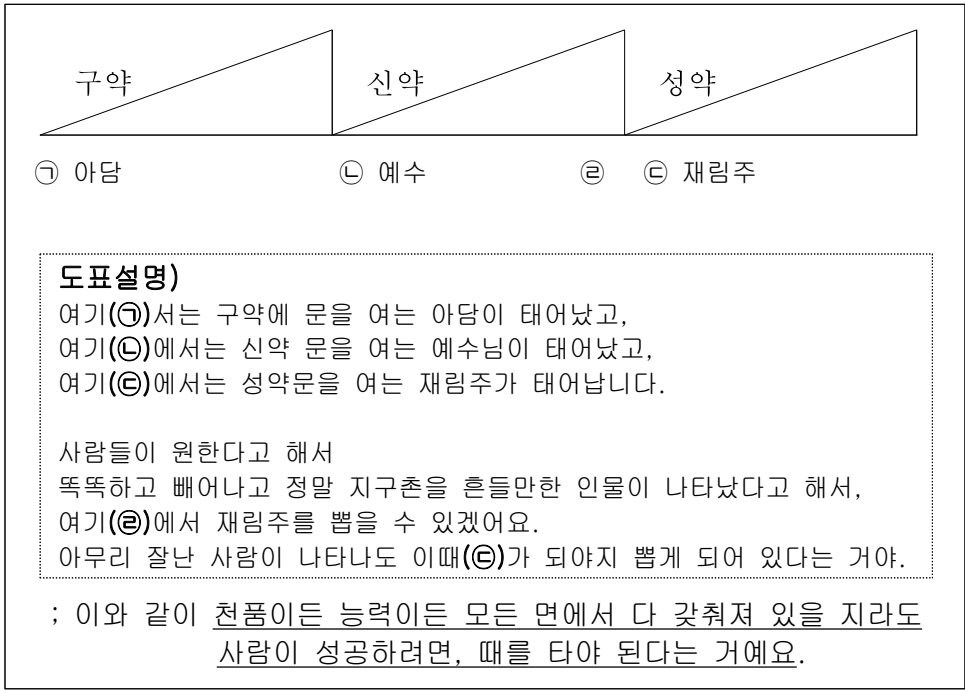
2. 중심인물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1) 가장 먼저는 **전례**를 본다. ㉠

11 :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 아들들이 다 왔냐? 이거예요. ㉡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 ; 이것은 다윗이 오기까지 밥도 안 먹고 있겠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때로는 식사도 안하고 역사를 이루는데 전념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12 :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 눈이 빼어나고 ㉡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 :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 “..... 눈이 빼어나고.... ” ; 눈이 빼어났다는 것이 핵심이야. 왜냐? <u>‘눈’은 사상과 정신을 얘기합니다.</u>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사상이 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u>얼굴이 아름답더라.</u>” ; 무슨 말이나 하면 <u>얼굴에 규와 모가 갖추어져 있어서</u> <u>내적인 세계가 온순하고 온전하게</u> <u>기품 있게 갖춰져 있다는 거야.</u>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 하나님이 깨우쳐준 거야. 아주 키도 작은데, 눈만 살아 갖고 부리부리 하고 아주 얼굴은 붉고 홍안 소년인 그가 딱 나타났을 때, 바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으래요. 이가 왕으로 뽑혔다는 거야. 아셨어요. 그렇다고 허울이 좋다고 뽑히는게 아니야.

II. 본 론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1) 가장 먼저는 전체를 본다. ㉠ 아6/10 : "㉠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 달같이 아름답고 ㉢ 해같이 맑고 ㉣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2) 하나님이 뽑을 때 뭐라 했냐면, ①“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 성격이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되는데. 사람 성격이 뚜렷해야 되.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되. 명확한 성격이야 되. ㉡ 희망, 소망, 칼(=명확)같은 성격. (살전5/14) ②“달같이 아름답고,” ; 온순해야 되. ③ 해같이 맑고 ; ㉠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열적이고 ㉡ 권위적인 성품이란 거예요. ④“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냐” ; 기치를 벌인 군대는 담대하고 용기있고 뭔가 기상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u>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은 하나님이 사람 뽑는 기준이에요.</u> <u>이와 같은 신앙의 미인을 뽑는다는 거예요.</u> <u>천품을 타고 나지만 인격은 자라면서 얻는다는 거예요.</u> <u>하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u> 3) 계1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같고’라고 그랬잖아요. 계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① 메시아의 눈이 불꽃같데요. ‘사상과 정신이 뚜렷하고 살아있다.’는 거야. 사람이 뭐라도 해 낼 수 있는 정신과 사상이 있어야 되요. 하나님적인 정신과 사상의 소유자야 되요. 그래야 하나님이 뽑아요. 예화) 누구랑 동업을 할지라도 마음이 맞아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 밀어붙이는데, 이 사람은 느그적 느그적 해. 매일 싸우다가 불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맞아야지 해 먹는다는 거야. ㉠ 이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타고서 역사하려면, 하나님적인 성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펼 수 있다는 거야. ㉡ 그래서, 하나님 사람 뽑을 때는 하나님의 사상, 정신, 기상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들어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섭리를 시작한다는 애깁니다. 아시겠죠.

II. 본 론	
2. 중심인물론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	(2) 때와 시기를 봅니다. ㉠ 1) 전3/1 :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이랬어요. 모든 것이 세상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때와 기한이 안 되면, 날고 기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화) ㉠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살이 할 때는 잘나고 똑똑하면 오히려 맞아죽었어요. 그럴잖아요. ㉡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때, 잘나고 똑똑하다 해서 벼슬해 먹을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똑똑할수록 감시의 대상이었다. 민족을 보니 한스럽고 낙망스럽고 이 잘남과 기상과 그 사람에 패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애통항속에. 그런 것이 같이 먹서가 되면서 견딜 수가 없죠 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당감기간을 풀어주기까지는 안 되잖아요. ; 이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때가 아닐 때 태어나면 더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때와 기간이 있어요. 운세를 타야 되.

2. 중심인물 을 선택 하 는 하 나 님 의 기 준 은 ?	II. 본 론
	2) 참고 -----<시작> ① 교훈 W)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 인간이 제 아무리 옴부럼 친다 해도 헛다리치고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② 사람이 성공하는데 때와 기간이 맞아야 되요. ㉠ 여러분은 참 좋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감지덕지해야 되요. 예화) ㉠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여러 가지로 고달팠을 거야. 인생이. ㉡ 정말 일제시대에 안 태어난 것도 감지덕지해야 될 일이고 ㉢ 우리 부모님 시대에 안 태어 난 것도 감격할 일이야. 6.25 전쟁이나 터지죠. 쿠테타나 터지죠. 광주사태가 터지죠. 수 천, 수 만 명이 죽어갔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좋은 세대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 그런데, 인간들이 시대적인 혜택을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거야. ㉤ 정말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께 잘 해야 잘되는 민족이에요. ㉥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잘되는가를 생각해봐요. 예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인자가 온 줄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예요. 그런데 무화과 잎이 연하여진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이 잘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을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 우리나라가 몇 천 년 동안 급격하게 잘 된 때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놀라운 정도로 급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낸 민족이에요. 88올림픽 이전에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시대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다니지 마시고 뭔가를 깨달아서 알고 시대를 좇아 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때와 시간이 맞아야 되요. 참고-----<끝>

II. 본 론	
2. 중심인물론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3) <메시아를 뽑는 것도>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닌데 메시아를 뽑으면 됩니까? ① 예화)  도표설명) 여기(㉠)서는 구약에 문을 여는 아담이 태어났고, 여기(㉡)에서는 신약 문을 여는 예수님이 태어났고, 여기(㉢)에서는 성약문을 여는 재림주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똑똑하고 빼어나고 정말 지구촌을 흔들만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재림주를 뽑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나타나도 이때(㉢)가 돼야지 뽑게 되어 있다는 거야. ; 이와 같이 <u>천품이든 능력이든 모든 면에서 다 갖춰져 있을 자라도</u> <u>사람이 성공하려면, 때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u> ② 교훈 말씀 ㉠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너무나 복 있는 인생이야. 왜냐?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에요. <u>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만한 때인 거예요.</u> <u>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만한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때입니다.</u> ㉡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태평양 바다에 고래처럼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해요. 그렇게 인생의 운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말씀에 위력이 크고, 여러분에 삶에 능력을 뒤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 걸 바라볼지라도 여러분! 참 때를 잘타고 났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할 만한 사건입니다.

II. 본 론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	(3) 소질과 재질을 본다. ① ① ‘정말 이를 보내면, 인류를 과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마라톤 선수로 황영조를 뽑았기 때문에 옛날 손기정 때 한 번 우승하고 한 번도 못했던 마라톤에서 우승하게 되잖아요. 그때 민족적인 환희와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처럼 무언가 정말 우리의 한을 풀어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야 온 인류가 기뻐하고, 우리 민족이 기뻐할 만한 사건이 아니겠어요. ; 이런 것처럼 메시아를 뽑을 때도 ①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고 ② 온 인류에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과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소질과 재질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할 자가 없다 할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 ② 하나님이 뽑을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잘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예화) A, B, C, D, E 란 사람의 인생이 아래와 같은 정도의 인생이다. A ----- B ----- C ----- D ----- E -----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이 리스트에 올라 왔다면, 이렇게 최고 잘난 사람 중에서 요만큼만 나서도 이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럴겠어요. 안 그럴겠어요. 예화) 100M 달리기 할 때도 코가 1cm라도 앞에 나오잖아요. 0.5cm이라도 앞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금메달이야. ; 이것처럼 메시아를 뽑는데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뽑아서 D를 다룰 수 있겠어요. 못 다뤄요. B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일찍 뽑는거야. 이 사람들이 요만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버려 그냥. 뽑은 사람이

II. 본 론

③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보낸 자(=메시아)를 神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

예화)

여기 B에 올라가면 천국(=이상세계)이 있데. 대개 보면 사람은 여기(a)서부터 여기(b)까진 평생 오르고 올라도 못 오를 기암 절벽이예요. 영원토록 올라도 불가능하다 할 만큼. 그런데 여기(A)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B로 올라가기 위해 매일 암벽 타기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포기를 한 사람들이 수 백 명, 수 천 명에 가까워.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고가 그렇게 완전히 감금되요.

그러고 있을 때에 마치, 등산 전문가 완벽하게 이 사람을 등산전문가로 양육시키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야. 평생 동안 매일 밧줄 던지는 것만 연습을 시켜요. 거의 30년 동안 인생이 다가도록 밧줄 던지는 것만 시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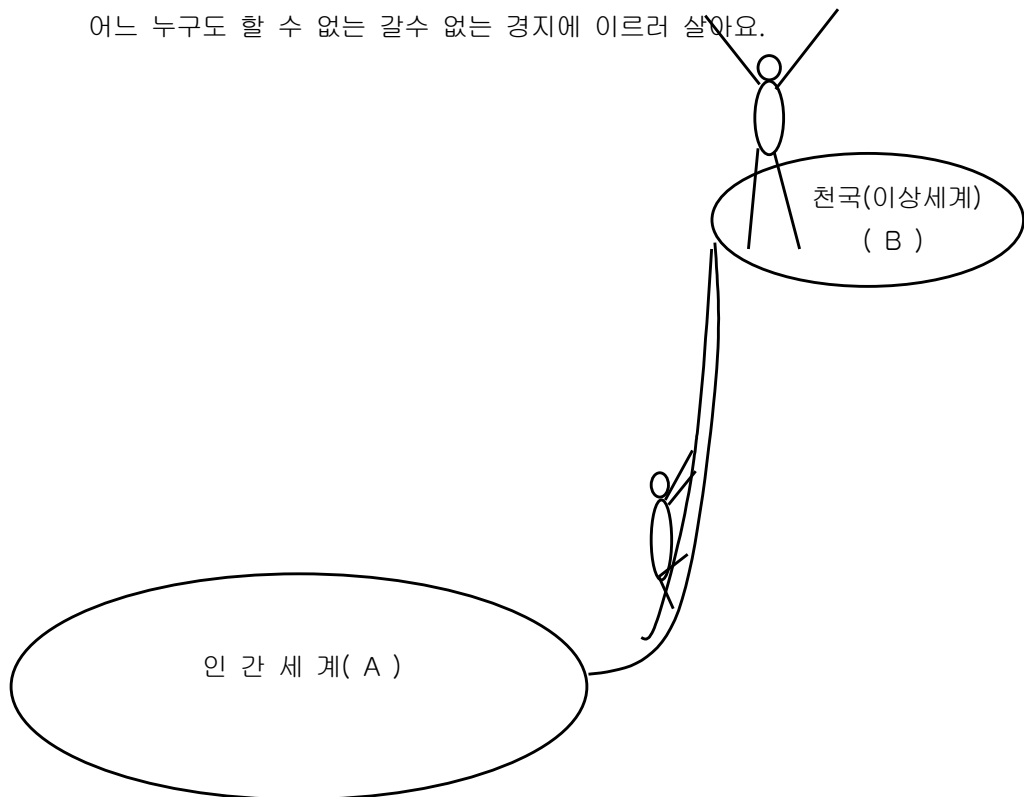
그래서 밧줄을 던지게 되는 거야. 맨 날 밧줄을 던지고, 매일 밧줄을 타는 연습만 했거든요. 급기야는 이 사람이 B란 세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올라서서 이 밧줄을 딱 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여기(A)서 딱 쳐다보는 거야. 일반사람들은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가 신이구나.” 이래요.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러면서 바라본다는 거야. 아시겠죠.

; 이렇게 메시아도 똑같은 인간이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는 연단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갈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살아요.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3) 신적 재능을 본다. ⑥

II. 본 론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3) 소결과 재질을 본다. ㉞ ㉠ 온 인류의 머리를 다 동원해서 짜내도 나올 수 없는 그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적 차원에 경지에서 양육을 받고 연단 받아서 근본을 알게 됐거든요. 영계를 통해서 이미 답을 알고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할 일을 온 인류가 못 할 일을 그 한사람이 한다는 거야. 그렇게 큰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욕으로 볼 때는 제대로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보면, “저 사람 정말 메시아니까 하는구나.” “아! 그는 당연히 하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못하겠어.” 이렇게 여기지만, ; 이 메시아도 인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걸어왔다는 거야. ㉢ 메시아도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걸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뽑은 자니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보다 더 못한 위치에서 나는 이 길을 왔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난, 너희보다도 더 못배우고, 너희보다도 더 무시받고, 난, 너희보다도 더 못입고, 더 못났고, 가난한데서 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내가 이 길을 온 것은 나의 이러한 몸부림과 연단과 하나님께 메달리고 간구함으로 나는 이 길을 올 수 있었다.”이러면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거야.“나 이렇게해서 왔다고. 너희들도 나보다 더 좋은 조건과 배경 가운데서 살면서, 너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이렇게 얘기를 한다는거죠. 아시겠죠.

II. 본 론		
2.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6)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	데전 5/23 :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 메시아가 불구자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모든 세계에서 불구자가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자이어야 사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III. 결 론

1. [참 조]

여러분들도 보면, 그 주관권에서는 제일 괜찮다 제일 눈에 띈다.
그래도 제일 갖춰져 있다.

㉠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람을 뽑으세요.

㉢ 메시야는 정말 1000년대에 2000년대에 한 명씩 뽑고

㉣ 선지자는 400년마다 한 명씩 뽑고

㉤ 사사들도 뽑고,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중심인물들이 많아요.

예화)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와요.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가 와요.
사도시대 때는 사도가 서고, 메시야 시대 때는 메시야가 옵니다.

근데 가장 큰 사역자는 메시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사사도 그 어떤 사명자들도 메시야가 오길 기다려요.

그가 와야지 하나님에 이상적인 세계와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Ⅲ. 결 론

2. [참 조]

인류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육신을 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메시아는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 ㉠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같은 완전히 하나님이 힘껏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드는 거야.

메시아 한 사람을 키우는데, 주님이 한 세월을 다 보낸대요. 그러니까 40년을 보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사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사람 뽑아서 키워서 2000년 역사를 이뤘잖아요.

메시아 키우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신이 직접 강림하세요. 예수님 신이 직접 강림하시는 거예요. 직접 강림해서 직접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나에 대신자다. 나의 분신이다. 이는 나의 후견인이다.” 할만한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거야. 나는 영이기 때문에 직접 역사할 수 없잖아요.

예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길동아!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다고 알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거든. “유경아! 너는 이 시대가 어떤지 알겠니?” 그런다고 알겠어요. 주님이 아무리 목 놓아 “유경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런다고 알겠어요.

; 그래서 중심인물을 세우는 거야.

- ㉡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이루고자 하는 뜻이 크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뽑아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파하십니다. 어떠한 역사를 이룰 건가 어떠한 섭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누누이 하신다는 거야.

3. [참 조]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역사의 때가 된 시대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아요.

- ㉠ 하나님이 중심인물 한 사람을 키우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요 지구촌에 45억하고 메시아하고 안 바껴요.

- ㉡ 왜 줄 알아요. 45억에 인구를 구원할 사람은 메시아거든. 메시아 하나 없으면 온 인류의 세계가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온 인류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III. 결 론

3. 천상천하에서 메시아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촌 만들어 놓고
이 지구촌이 한나라와 같은 세계가 되기를 영원하고 몸 부림쳐오셨다는 거예요.

예화)

- ㉠ 그래서 아담을 세웠거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소망을 걸었는지 모르지.
그러니, 아담이 역사 시작하면서 타락되면서 인류 역사를 깨뜨린 거거든.
그래서 복직하려고 4000년 흘러간 거거든. 하나님이 만든 기간에 비하면
4000년을 아무것도 아니야.
- ㉡ 그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세웠어.
그런데 역사를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어.
- ㉢ 그래서 재림주를 또 다시 보내는 거니까 이번에 정말 마지막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아주 눈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이 지구촌에 메시아를 보내면서 섭리를 할려고 하신다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셨어요.

4. 인간 중에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메시아 자신이 기다려요. 자기가 메시아인 걸 몰라.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인 걸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그랬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 ㉠ 본인이 제일 몰라. 근데 제일 기다려.
왜냐하면 너무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구원주를 기다리는 거야.
누구보다도 많은 무시와 천대와 고생과 짓밟힘 가운데 오는 사람이 메시아였잖아요.
- ㉡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면 자기를 구원해 줄거라는 소망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늘 메달리고 기도해.
“주님 보내달라고. 날 살릴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애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 ㉢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자기야.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준 거야.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자기를 제일 기다린데.
- ㉣ 그러니까“기다린 자는 기다린 자에게서 나온다.”고 했잖아.
기다린자는 기다린 자에게서 나오리라.
메시아를 제일 기다렸던 네가 메시아란거야.

예화)

큰 바위 얼굴이 생각날 거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큰 바위얼굴이 오길 바랬는데,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야. 어느 날 보니까.

;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마치 그런 입장과 똑같다했어요.

- ㉤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던 순서대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III. 결 론

5. 이렇게 정말 중심인물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중심인물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을 수 없어.

㉠ 이 지구촌에 사람들은

물질을 중시하고 학문의 세계에 매어있고, 가정에 묶여있고 사랑의 고뇌에 빠져있고 모든 이런 저러한 세계에 찌들려 있는 세상살이	의 삶 속에서도
--	----------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갖고 살아요.

; 인간의 창조목적과 근본은 메시아를 만나야 풀려요.
온 인류의 소망도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고로 메시아를 만나는게 온인류의 소망이야.

- ㉡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거야.
메시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 ㉢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리지 말고
교회에서 찬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때와 시대를 분별하면서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낸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진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리지날로 깨달아 좇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인생에 구원에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에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개론 강의자료〉

중심인물론

선배 가정국 교육국

30개론 강의자료 (중심인물론)

펴 낸 이 : 선배 가정국 교육국

내용·편집 : 박 광섭 강도사

감 수 : 김 옥주 목사

발 행 일 : 2007. 4. 13

※ 교육국의 정식허가 없이 복사나 제본 행위는 금지합니다.

기타 내용에 관한 문의는 선배 가정국 교육국으로 연락 주세요.

